

# 끝없는 초원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

채지형 / 여행작가 [www.traveldesigner.co.kr](http://www.traveldesigner.co.kr)





초원을 가르며 걸어가는 아프리카 코끼리

가을이 되면 그리운 풍경이 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한없이 달리던 순간이다. 야생동물만을 기대하고 갔던 그곳에서 만난 갈색 초원은 예상치 못하게 받은 큰 선물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에서 흙먼지를 날리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들을 만지다 보니, 오랜만에 나 자신이 '생명'의 일부라는 것이 느껴졌다. 동등한 생명체의 일원이 되어 바라보는 동물들의 세상도 놀라웠지만, 풀과 동물과 바람과 하늘과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새삼스레 놀라웠다.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같은 다큐멘터리 채널을 즐겨보지 않는 이라도 상관없다. 세렝게티에 가면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리게 될 테니. 아름다운 초원과 생명력 넘치는 동물들에게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세렝게티에서의 3박 4일.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탄자니아의 작은 도시 아루샤에 가야한다. 그곳에서는 3박 4일부터 일주일까지 짧고 긴 '사파리' 여행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여행자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만야라 레이크를 거쳐 세렝게티와 응고롱고로를 3박 4일 동안 돌아보는 것으로, 3박 4일 내내 가이드와 요리사가 동행한다.

## 만야라레이크에서 세렝게티, 응고롱고로 이어지는 3박 4일 사파리

야생동물을 보러 돌아다니는 여행을 보통 '사파리'라고 하지만, 원래 '사파리'라는 뜻은 스와힐리어로 '여행'을 의미한다. 우리가 말하는 '사파리'를 현지에서는 '게임 드라이브'라고 한다. 첫날 게임 드라이브는 만야라 내셔널 파크(Manyara National Park)에서 시작된다. 만야라 국립공원에서 우거진 아카시아 가시나무를 헤치고 들어가니 수십 마리의 바분(원숭이)들이 먼저 인사를 건넨다. 호수 가까이 가니 커다란 하마와 그림처럼 펼쳐진 얼룩말들, 코끼리들 가족들의 이동이 한눈에 들어온다.

첫 날 숙소는 호수가 한 눈에 보이는 파노라믹 캠프 사이트. 첫날의 흥분된 게임 드라이브를 마

치면, 요리사가 차려놓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프와 스투가 기다린다. 그 속에서 먹는 밥맛도 꿀맛이지만, 식사를 마친 후 자연 속에서 마시는 차 한 잔, 그 여유로움과 향기는 훌륭한 서정시 한편을 읽는 것만 같다.

이틀째 되는 날은 아프리카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세렝게티(Serengeti) 국립공원을 만나는 날이다. '끝없는 평원'이라는 뜻의 세렝게티. 그 드넓은 평원에 낮을 잃게 되는 것은 순간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무 한 그루 없는 평원과 하늘만이 가득하다.

세렝게티 면적은 1만4763평방km. 우리나라 면적(남한)이 약 9만9000평방km 정도이니, 남한의 약 6분의 1정도 크기이다. 탄자니아의 세렝게티는 케냐의 마사이마라와 연결돼 있다. 세렝게티 쪽에 머무르던 동물들은 물과 먹이를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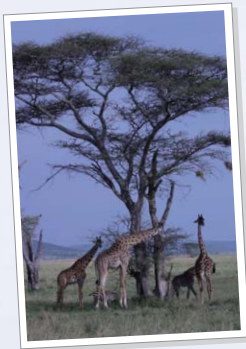


망원경으로 동물들을 관찰하고 있는 여행자들

7월부터 케냐의 마사이마라로 대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케냐 쪽에서 게임 드라이브를 하는 것이 동물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는 코리 버스타드, 30cm밖에 안 되는 귀여운 영양 디딤 등 세렝게티에서 만난 동물만 해도 수십 종이 넘었다.

### 웅대한 자연의 품에 안겨있는 그 느낌



이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기린들

어디선가 임팔라 무리들이, 초원을 가르는 우리 일행을 뺨뚱이 쳐다봤다. 마치 '또다른 녀석이 하나 들어왔네' 하는 것만 같았다.

세렝게티에서 처음 만난 동물은 심바(사자) 가족이었는데, 게으르게 누워있는 품이 세상 다 귀찮다는 표정 같았다. 캠프장 바로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얼룩말들, 눈만 꺾벼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하품하는 하마들, 얼룩말과 놀고 있는 기린들, 목 운동을 하는 엄마와 아기 기린, 종종 걸음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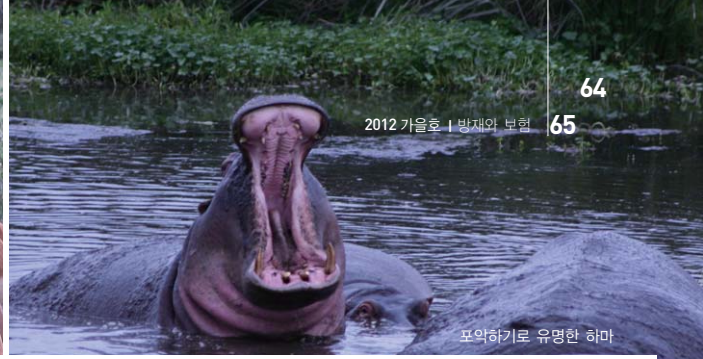
망원렌즈로 동물들을 보다가, 잠시 눈길을 돌려 시원한 평원을 바라보니 그 속으로 쭈욱 빨려 들 것만 같았다. 투명한 햇살과 적당한 미풍에 온몸을 맡기고 끝없이 펼쳐진 평원을 바라보던 순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날 저녁 응고롱고로의 심바 캠프에서는 잠자고 있던 텐트 옆으로 코끼리가 쿵쿵 거리며 지나갔다. '이런, 코끼리 발에 밟혀 죽을 뻔 했잖아!' 무섭지도 않은지 영국 청년 크리스는 화장실 가는 길에 사자도 봤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마지막 날은 응고롱고로에서 게임 드라이브를 하는 날이었다. 응고롱고로는 남북 16km, 동서 19km



초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가젤들



포악하기로 유명한 하마

에 이르는 분화구. 수 천만 년 전 화산활동에 의해서 분화구가 만들어진 이후, 동물들의 낙원이 된 곳이다. 응고룡고로는 누군가 발로 밟아놓은 것처럼 생겨, 그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사발에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힘 자랑 하느라 나무를 넘어뜨리고 있던 아프리카 코끼리, 우아한 분홍색 날개를 펼치며 자리 이동을 하던 플라밍고, 나무 위에 폼 나게 앉아있던 치타, 통통한 엉덩이를 실룩거리던 얼룩말... 그림 같은 아카시아 가시 나무 위에는 독수리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

다. TV에서나 보던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빅 5로 알려진 코끼리와 사자, 표범, 버팔로, 코뿔소는 물론이고 셀 수 없이 많은 얼룩말과 누메, 기린 가족과 하마들, 하이에나와 워터벅, 그랜 가젤, 자칼과 톱슨 가젤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동물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렇게 끝없는 초원에 취해 생명력 넘치는 동물들에 빠져 있다 보니, 3박 4일이 손살같이 지나가 버렸다. 이미 그 때 알고 있었다. 오랫동안 이 지나간 시간이 그리워 질 것이라는 것을. ☺



용맹한 마사이부족



야생동물들의 천국, 응고룡고로 국립공원

### ■ <여행정보>

- \* 통화 = 탄자니아 실링(Tsh)으로, 1달러=약 1600탄자니아 실링(Tsh) 2012년 8월 기준.
- \* 시차 = 우리나라보다 6시간 늦다.
- \* 비자 = 공항이나 국경에서 50달러를 내고 바로 받을 수 있다.
- \* 기후 = 해 안지대는 고온다습하고 내륙은 기온차가 심하다. 우기와 건기가 구분되어 있으며, 3~5월이 대우기, 10월~11월이 소우기다.
- \* 참고 사이트 = 세렝게티 국립공원 공식 사이트  
<http://www.serengeti.org>



끝없이 펼쳐진 세렝게티의 초원